

## 자동차 100만대·세계수영 '첫 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자동차벨리' 관련사업 75억·수영대회 20억  
전남, 남해안 철도 250억 증액·광양항 108억 반영

###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무등산 군부대 이전비 15억 편성

광주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비롯한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 광주 현안과 관련한 국회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 3면〉

이들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누락되면서 지역민들이 반발이 잇따랐고 이에 광주일보가 수영대회 국비 지원 근거를 위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관련 기획기사(11월 11·20일자 1면)와 '자동차 100만대 광주 미래열차'라는 기획기사(11월 27·30, 12월 1일자 1·3면) 등을 통해 정부의 국비 반영을 촉구했다.

◇광주시=내년 새해 예산 반영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자동차 100만대 사업'의 국비 예산 30억원이 국회에서 반영됐다. 또한, '수소 및 전기가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사업비' 20억원과 '조경량 고강성 처체사시부품기술개발비' 25억원 등도 반영되면서 광주시 현안 사업인 자동차 벨리 조성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원 불가 방침을 밝혔던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관련 예산 20억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회 준비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한 국방부 예산 15억원이 예산안에 포함되면서 광주시민들의 60여년의 숙원이었던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예산은 494억원에서 80억원이 증액되면서 전당

운영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호남직업전문학교 체험센터 설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됐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 설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4억원도 이날 국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가 요청한 국비 지원 사업비는 이날 국회 심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1조6675억원 보다 65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6584억원 보다 748억원(4.5%)이 늘어난 1조7332억원 규모가 됐다.

◇전남도=우선 3대 기반시설이라고 불리며 관심을 받았던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당초 정부예산안 149억원에서 223억원,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 송정~목포) 역시 1100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역시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나 2020년 완공에 파란불이 켜졌다. 정부예산안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던 광양항 24월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지원 예산은 국회에서 살아나 108억원이 배정되면서 투포트의 위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386조4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범정시한인 2일 막판 협상을 통해 이 같은 규모의 총 예산 규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순(純)삭감된 규모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8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5000억원이 증액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두근두근' 내 수능 등급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2일 광주시 남구 대성여고 3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선택의 기로에서 고뇌하는 호남 국회의원들

### 뉴스초점

2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호남지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당내 내홍이 심상치 않다.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가 정면충돌하면서 특별한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분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호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은 지역 민심의 흐름 등을 보며 정치적 선택에 나설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의 수권 비전 부재와 계속되는 내분으로 호남 민심 이반은 더욱 가속화되면서 신당 창당 동력도 커지고 있다. 이달 내에 신당 세력 간의 통합 방안이 구체화되고 내년 1월 중순에는 신당의 깃발이 세워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 폐회 이후, 호남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의 탈당과 신당 합류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적 쇄신 바람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거센 전망이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거취 고민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신당과의 경쟁을 넘어 호남 민심 복원 없이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호남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인적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정치연합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의 평가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 20%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며 공심위 심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인적 쇄신 바람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거센 전망이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거취 고민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신당과의 경쟁을 넘어 호남 민심 복원 없이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호남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인적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정치연합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의 평가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 20%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며 공심위 심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예산안 처리 정기국회 마무리 본격 총선 국면 돌입 새정치 내홍 민심이반 가속에 신당 흐름 살피며 고심 또 고심

문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안을 실천해야 하며 인적쇄신까지 가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서는 평가위 심사와 공천 심사 과정에서 호남 국회의원 가운데 5~6명은 공천에서 탈락하지 않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인적 쇄신 바람은 그동안 문 대표 등 주류 체제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던 호남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거취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기에 김성근 의원(여수 갑·4선)이 호남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호남 중진들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적 동기가 될 수 있는 신당 진영에서도 호남지역 국회의원 합류에 내심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호남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합류한다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는 신당의 이미지를 흐릴 수 있고 지역 정당이라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당 세력 핵심 관계자는 "호남 민심이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호남 국회의원들의 신당 합류를 무조건 환영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은 당내 권력 지형 변화와 신당의 가능성, 호남 민심의 흐름 등을 살피며 20대 총선에서의 활로 모색을 위해 수차례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신세계, 판매시설 축소 '특급호텔 수정안' 제시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주)광주신세계가 판매시설 면적을 줄이는 수정안을 제시해 광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일 광주시와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애초 계획한 백화점, 면세점, 마트 등 판매시설 면적을 1만㎡가량 축소하기로

했다. 애초 지하 7층에 지상 21층 규모로 계획됐지만, 백화점과 마트, 면세점이 포함된 판매시설 1개 층을 축소하고, 지하 주차장도 1층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준에는 전체 건축면적 34만㎡가량의 32%인 11만㎡가 판매시설로 잡혀 지나치게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세계 측에서 수정안을 공식 제출하는 대로 수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마련, 건폐율(68%) 완화, 주변 도로 폭 확

장, 공공보행로 확보 등 9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광주신세계는 용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구단위 계획변경, 교통영향 평가 등 절차를 거치려면 착공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추진 지연도 불가피하다. 특히 인근 중소상인 등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 공공보행로 확보 등 9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광주신세계는 용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구단위 계획변경, 교통영향 평가 등 절차를 거치려면 착공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추진 지연도 불가피하다. 특히 인근 중소상인 등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가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전남대 '총장 직선제' 복귀하나 ▶ 6면  
판화가 이철수 광주서 전시회 ▶ 16면

호남 최대 부수·24면 발행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 Tel. 062)226-0001

신성자동차(주)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6km/ℓ (도시연비: 6.7km/ℓ, 고속도로연비: 9.1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36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